

# 한국의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담영<sup>1</sup>, 이정건<sup>2\*</sup>

<sup>1</sup>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 <sup>2</sup>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Effects of Korean Group Art Therapy on Disabled Persons: Meta-Analysis

TAN YING<sup>1</sup>, Jung-Gun Lee<sup>2\*</sup>

<sup>1</sup>Manage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sup>2</sup>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간된 석사학위논문 16편과 학술지 논문 10편 총 2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큰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요인별 효과크기는 삶의 의미 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 사회적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유형에 있어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크기는 정신장애 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지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미술치료 효과크기 조절요인 가운데 주별 횟수는 주1회가 주2회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회기 수에 있어 지체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12회기 미만이 12회기 초과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ffect size of the group art therapy effect factors had a large effect size. Second, the effect size of the meaning of life was the largest among the effect sizes by factor, followed b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ity, self-efficacy, self-expression, and social skills. Third, the effect size of the mental disorder was the largest in the type of disability, followed by physical disability,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intellectual disability. Fourth, among the factors controlling the effect size of group art therapy, once a week had a larger effect size than twice a week. Regarding the number of sessions, in the case of physical disabilities, less than 12 sessions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size than more than 12 sess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group art therapy.

**Keywords** : Goup Therapy, Group Art Therapy, Disabled Person, Meta-Analysis, Effect Size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발달에 따라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

환경오염과 공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선천적 장애인 아  
니라 후천적 장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  
건복지부[1]가 보고한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Corresponding Author : Jung-Gun Lee(SoGang Univ.)

email: lizj1973@sogang.ac.kr

Received October 11,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November 2,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해당되며 이는 전년 대비 8,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장애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온전히 영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하고 질병의 회복 속도가 느리며 장애로 인한 이차 장애 발생 위험성도 높다[2]. 또한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쉽게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므로 타인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3].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재활 및 심리·정서 치료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술치료는 말로써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있어 미술이라는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비언어적인 매개인 미술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대·소근육의 조절능력, 눈과 손의 협응력, 집중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정서발달 증진에 크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키며[7]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9], 지체장애인의 삶의 의미를 향상 시키고[10],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키며[11]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3,14], 자기표현 및 사회적 기술 향상에도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15,16].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에 있어 사회, 정서, 심리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살핀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영향 요인들을 선택하여 살피고 있다. 이러한 개개의 연구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의 효과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연구마다 연구대상과 관련 영향 요인이 다르며 치료 프로그램 및 치료적 개입 방법 등이 각기 달라 집단미술치료의 종합적인 효과성을 살피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메타분석(Meta-Analysis) 활용이 요구된다.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실험군의 사전, 사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사례 수를 토대로 전체 효과크기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7].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는 매우 큰 효과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에서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가 매우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ADHD 초등학생 아동에게 있어서도 역시 높은 효과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각 장애별 효과성을 종합하여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포괄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련 요인별 효과크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단미술치료의 종합적인 효과를 살피고 관련 요인별 효과크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더불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주당 횟수, 회기 수, 적용 시간)에 따른 관련 요인들의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추후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치료의 전체요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의 요인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집단미술치료는 장애유형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넷째, 집단미술치료의 효과크기는 조절요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및 선정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 대상은 출간 시작 시기 제한 없이 2023년 8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로 하였다. 이는 메타분석 특성상 선행된 연구들을 가능하면 하나도 빠짐 없이 수집하는 것이 통합연구가 의도하는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포괄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외 한국학술정보(KISS)와 국회전자도서관(nanet) 등을 통해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자료수집 검색 키워드는 ‘집단미술치료-장애인’, ‘미술치료-장애인’, ‘미술 중재 프로그램-장애인’, ‘미술-장애인’ 등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학위논문 229편, 학술지 91편이 검색되었다. 넷째, 자료선정으로 검색된 자료 가운데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석사학위논문 16편과 학술지 논문 10편 총 26편의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자료는 Table 1과 같다.

### 2.2 자료의 코딩 및 분류 방법

분석대상 자료의 코딩은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코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과 통계분석 전문가 1명 총 3명이 예비 코딩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연구 중 40%에 해당되는 10편의 연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후, 개별 코딩 후 상호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예비 코딩 시 불일치 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후 합의점을 찾았다.

코딩된 자료는 장애분류와 조절요인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먼저, 장애분류는 정신과 신체 관련 장애로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로 크게 구분하여 코딩하였으며 중재요인은 집단미술치료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적용방법으로 주당 횟수, 회기 수, 적용 시간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 2.3 자료의 분석

MS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코딩된 자료는 CMA 3.3 메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도구는 전체 효과크기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간 관련 효과요인과 중재요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다[17].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모형 선택은 동질성 검증( $Q$ )과 이질성 검증( $I^2$ )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질성 검증( $Q$ )결과가 유의 확률이 .10 보다 작고, 이질성 검증( $I^2$ )결과 이질성이 50%이상인 경우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이 아닌 임의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선택한다[17]. 둘째, 효과크기 값 해석은 Cohen[20]이 제시한 방법인, 작은효과크기( $ES_{sm} \leq .20$ ), 중간효과크기( $ES_{sm} = .50$ ), 큰 효과크기( $ES_{sm} \leq .80$ ) 기준을 따랐다. 셋째, 연구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간오류 검증인 funnel plot와 후속 검사인 Egger's regression analysis, Trim-and-Fill 등을 활용하였다[17].

## 3. 연구 결과

### 3.1 집단미술치료 전체 효과크기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는 1,921로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 2.208, 하한값 1.534로 유의미하였으며, 효과크기는 .80이상으로 큰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선택에 있어 동질성( $Q$ ) = 174.819( $p < .001$ ), 이질성( $I^2$ ) = 74.055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의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선택하였다. 집단미술치료 전체 효과크기는 Table 2와 같다.

### 3.2 집단미술치료 요인별 효과크기

집단미술치료 요인별 효과크기는 대인관계, 사회성, 사회적기술, 삶의 의미,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나타낸 모든 요인들은 .80이상으로 큰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요인별 효과크기 차이는 삶의 의미(4.612)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자아존중감(3.391), 대인관계(3.245), 사회성(2.590), 자기효능감(1.822), 자기표현(1.669), 사회적 기술(1.645)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 요인별 효과크기는 Table 3과 같다.

Table 1. Analyzed studies

Author	Year	Type of disability	Research type	Author	Year	Type of disability	Research type
Y. K. Kang	2013	Intellectual	Master	H. D. Lee	2018	Intellectual	Master
D. J. Kim	2018	Intellectual	Master	D. H. Choi	2014	Intellectual	Master
S. H. Kim	2017	Intellectual	Master	S. P. Choi	2013	Intellectual	Master
S. J. Kim	2014	Developmental	Master	E. Y. Kim	2021	Developmental	Journal
H. S. Kim	2003	Mental	Master	J. W. Jeong	2020	Physical	Journal
M. K. Dan	2017	Mental	Master	K. Y. Park, etc	2014	Physical	Journal
S. Y. Park	2010	Developmental	Master	J. H. Shin, etc*	2020	Intellectual	Journal
H. N. Park	2021	Intellectual	Master	J. Y. Ahn, etc*	2016	Mental	Journal
S. Y. Seo	2017	Intellectual	Master	J. S. Lee, etc	2012	Developmental	Journal
G. Y. Lee	2014	Intellectual	Master	H. E. Lee, etc	2013	Mental	Journal
S. J. Lee	2018	Intellectual	Master	C. W. Jeong	2019	Physical	Journal
S. M. Lee	2007	Intellectual	Master	S. K. Joo	2009	Physical	Journal
J. H. Lee	2018	Intellectual	Master	J. W. Jeong	2022	Physical	Journal

\*\* : Research published in a thesis

Table 2. Variables total effect size

	k	ES	LL	UL	Q	df	p	I2
All variables	43	1.921	1.534	2.308	174.819	42	0.000	75.975

\*\*\*  $p < .001$

Table 3. Effect size of variables

	k	ES	LL	UL	Qb
Human relationship	4	3.245	1.800	4.691	23.667*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2	1.567	-0.391	3.530	
Sociability	4	2.590	1.294	3.887	
Social skills	5	1.645	0.517	2.774	
Social self-efficacy	3	0.722	-0.644	2.088	
Meaning of life	2	4.612	2.314	6.910	
Depressed	1	0.505	-2.028	3.035	
Communication	1	1.272	-1.173	3.717	
General self-efficacy	3	1.050	-0.324	2.425	
Self-determination	2	1.291	-0.533	3.114	
Self expression	6	1.669	0.633	2.705	
Self-efficacy	2	1.822	0.071	3.573	
Self-esteem	6	3.391	2.213	4.569	
Disability acceptance	1	1.831	-3.309	6.970	
Vocational ability	1	0.932	-1.495	3.356	

\*  $p < .05$

Table 4. Disability type effect size

	k	ES	LL	UL	Qb
Developmental disability	5	2.270	1.147	3.393	7.462*
Mental disorder	7	2.711	1.672	3.749	
Intellectual disability	23	1.472	0.961	1.983	
Physical disability	8	2.601	1.634	3.567	

\*  $p < .05$

### 3.3 집단미술치료 장애유형 별 효과크기

집단미술치료 장애유형에 있어 모든 장애유형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효과크기 차이는 정신장애(2.711)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지체장애(2.601), 발달장애(2.270), 지적장애(1.47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미술치료 장애유형 별 효과크기는 Table 4와 같다.

### 3.4 집단미술치료 조절요인별 효과크기

집단미술치료 효과크기 조절요인은 주별 횟수, 회기 수, 적용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살폈다.

#### 3.4.1 집단미술치료 주별 횟수

집단미술치료 주별 횟수 효과크기는 요인전체에서 주 1회와 주 2회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 하였으며, 주별 횟수 차이는 주 1회(2.445)가 주 2회(1.389)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주별 횟

수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미술치료 주별 횟수 효과크기는 Table 5와 같다.

#### 3.4.2 집단미술치료 회기 수

집단미술치료 회기 수 효과크기는 요인 전체에서 12 회기 미만과 12회기 초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나 회기 수 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지체장애가 12회기 미만(3.209)이 12회기 초과(0.840) 보다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집단미술치료 회기 수 효과크기는 Table 6과 같다.

#### 3.4.3 집단미술치료 적용 시간

집단미술치료 적용 시간 효과크기는 요인 전체에서 60분 이하와 60분 초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적용 시간 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모든 장애유형이 적용 시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집단미술치료 적용 시간 효과크기는 Table 7과 같다.

Table 5. Number of times per week

		<i>k</i>	<i>ES</i>	<i>LL</i>	<i>UL</i>	<i>Q<sub>b</sub></i>
Variable total	Once a week	23	2.445	1.918	2.971	8.035*
	Twice a week	20	1.389	0.843	1.936	
Developmental disability	Once a week	4	2.152	0.911	3.393	0.265
	Twice a week	1	2.998	0.022	5.974	
Mental disorder	Once a week	6	4.731	2.362	7.101	1.974
	Twice a week	1	0.473	-4.973	5.919	
Intellectual disability	Once a week	9	1.662	1.118	2.205	5.709
	Twice a week	14	1.146	0.777	1.516	
Physical disability	Once a week	4	3.171	1.993	4.350	1.282
	Twice a week	4	2.111	0.704	3.518	

\**p*<.05

Table 6. Number of sessions

		<i>k</i>	<i>ES</i>	<i>LL</i>	<i>UL</i>	<i>Q<sub>b</sub></i>
Variable total	Less than 12 sessions	17	2.348	1.751	2.945	2.635
	More than 12 sessions	24	1.704	1.206	2.202	
Developmental disability	Less than 12sessions	1	3.926	1.242	6.610	1.789
	More than 12sessions	4	1.947	0.848	3.046	
Mental disorder	Less than 12sessions	2	3.186	-0.775	7.147	0.310
	More than 12sessions	5	4.553	1.827	7.278	
Intellectual disability	Less than 12sessions	8	1.284	0.738	1.829	0.211
	More than 12sessions	15	1.444	1.028	1.861	
Physical disability	Less than 12sessions	6	3.209	2.425	3.994	9.848*
	More than 12sessions	2	0.840	-0.414	2.095	

\**p*<.05

Table 7. Application time

		<i>k</i>	<i>ES</i>	<i>LL</i>	<i>UL</i>	<i>Q<sub>i</sub></i>
Variable total	Less than 60 minutes	20	2.101	1.492	2.710	2.015
	More than 60 minutes	23	1.912	1.379	2.445	
Developmental disability	Less than 60minutes	4	1.947	0.848	3.046	1.789
	More than 60minutes	1	3.926	1.242	6.610	
Mental disorder	Less than 60minutes	5	7.271	4.161	10.382	8.225
	More than 60minutes	2	0.876	-3.026	4.776	
Intellectual disability	Less than 60minutes	11	1.287	0.839	1.736	3.150
	More than 60minutes	12	1.356	0.900	1.813	
Physical disability	Less than 60minutes	.	.	.	.	0.000
	More than 60minutes	8	2.762	1.809	3.715	

<sup>\*</sup>*p*>.05

Table 8. Egger's Regression

	Intercept	<i>SE</i>	<i>LL</i>	<i>UL</i>	<i>t</i>	<i>df</i>	<i>p</i>
All variables	4.933	0.586	3.748	6.117	8.411	41.000	0.000

<sup>\*\*\*</sup>*p*<.001

Table 9.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i>ES</i>	<i>LL</i>	<i>UL</i>	<i>Q</i>
All variables	Observed values	.	1.921	1.534	2.308	174.818
	Adjusted values	12	1.306	0.867	1.745	321.114

### 3.5 이질성 검정 및 출판편의와 보정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출간요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unnel plot 결과,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소 우편향성을 보였다. 둘째, 후속 검사인 Egger's regression analysis 결과, Table 8과 같이 회귀식 초기값(Intercept)이 4.93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편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우 편향된 출간요류가 어느 정도 분석 결과의 평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기 위해 Duval과 Tweedie의 Trim-and-Fill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할 때 교정 되어야 할 연구의 수가 12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값(Observed values)의 효과크기 값이 1.921로 교정값(Adjusted values)의 효과크기 값 1.20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분석된 요인에 대한 효과크기 값은 안정된 결과로 판단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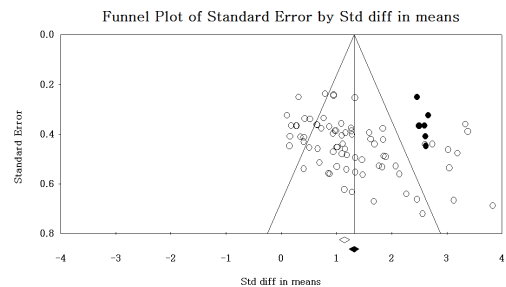


Fig. 1. funnel plot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국내에서 선행된 26편의 연구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대상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의 전체효과

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 전체효과크기가 매우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과 일치된다[21].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가 매우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과도 일치된 결과다[3,18,22].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이 지닌 다양한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된 장애인 대상 집단미술치료에서 다뤄진 영향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효과성이 높은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둘째, 요인별 효과크기는 삶의 의미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 사회적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 가운데 삶의 의미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이 현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가치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23]. 또한 비슷한 수준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도록 하며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사회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도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발달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셋째, 장애유형에 있어서 모든 장애의 효과크기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효과크기 별 차이는 정신장애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그다음 지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장애 모든 종류에서 집단미술치료가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치료의 효과성이 어떤 특정 장애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어떠한 장애를 가진 집단이라 할지라도 미술치료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정서, 사회적 발달에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효과크기 별 차이에서 정신장애가 가장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상대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장애 종류 중 상대적으로 지적장애의 효과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지능 발달로 인해 미술치료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집단미술치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자조 기술 향상 등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집단원 모방 및 관찰력, 주의집중력을 높이는 등 전반적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낮은 지능발달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넷째, 효과크기 조절요인 가운데 주별 횟수는 주1회가 주2회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회기 수에 있어 지체장애의 경우 12회기 미만이 12회기 초과보다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당 1회의 프로그램이 주당 2회의 프로그램 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며, 12회기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이 아닌 12회기 미만의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이는 장애인 특성상 대다수가 주중에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며, 12주 이상의 장기 치료 보다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한 단기적 개입이 장애인에게 유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을 수량적으로 통합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장애인 대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과 이에 따른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각 장애 별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포괄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련 요인별 효과크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살폈다는 데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결과에 따른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살핀 실험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연구를 중심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보다 분석된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효과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례 수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적, 상황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효과요인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효과요인들도 사례 수가 추가됨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연구 방향의 설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크기 조절요인 가운데 주별 횟수, 회기 수, 적용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만 살폈다. 추후 연구에서는 그 외 다양한 조절요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3. 4. 19, "265,000 persons with registered disabilities, 5.2% of the total population".
- [2] B. C. Choi, "2015 White Paper on the Disabled", Seoul: Korea Institute for the Disabled, pp.8-7, 2015.
- [3] H. J. Yu, K. M. Lee,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the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9, No.3, pp.461-484 2012.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2.19.3.001>
- [4] S. J. Kim,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Based on Field & Hoffman's self-determination program", Master's thesis, Gyeongbuk University, pp.35-39, 2014.
- [5] E. Y. Kim,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Using Food Medium on Sociality and Self-expression of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abilitie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7, No.2, pp.403-427, 2021. DOI: <https://doi.org/10.32451/KJOAPS.2021.17.2.403>
- [6] S. Y. Park, "Effects on emotional development and sociality of juvenil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by mass artistic remedy utilizing korean flower med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pp.72-74, 2010.
- [7] M. K. Dan,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f People with Chronic Mental Disorder",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pp.47-50, 2017.
- [8] H. E. Lee, K. S. Ki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Vol.3, No.1, pp.61-78, 2013.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028>
- [9] J. Y. Ahn, J. H. Shin, "The Effects of Interaction-Centered Group Art Therapy on the Social Skills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Mentally Disabled",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3, No.4, pp.1055-1078, 2016.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6.23.4.007>
- [10] J. W. Jung, "The Effects a Group Art Therapy Program Using Collage on The Self-Esteem and Meaning of Life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65, No.3, pp.193-225, 2022. DOI: <http://dx.doi.org/10.20971/kcpmd.2022.65.3.193>
- [11] G. H. Park, C. Y. Yoo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6, No.1, pp.1-14, 2014.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505>
- [12] S. K. Ju,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Disabled People", Master's thesis, Wonkwng University, pp.61-62, 2009.
- [13] S. J. Le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Based Group Art Therapy on Self-efficac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pp34-37, 2018.
- [14] J. H. Shin, H. S. Oh, "Effects of Motivational Strengthening using a Group Art Therapy on Vocational Adjustment Ability and Self efficacy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Vol.0, No.1, pp.81-110, 2020. DOI: <https://doi.org/10.34167/cliart.10.1.202004.81>
- [15] G. Y. Lee,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and sociality improvement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aster's thesis, Gwangju Women's University, pp88-90, 2014.
- [16] S. M.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Calligraphy 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The cas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pp68-70, 2007.
- [17] S. D. Hwang, "Understanding of Meta-analysis of Knowledge-Sunning", Seoul: Hak-jisa, pp.193-199, 2016.
- [18] H. J. Park, G. Y. Ro, Y. S. Min, "A Single-Subject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Art Therapy Interventions 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8, No.6, pp.1413-1429, 2017. DOI: <https://doi.org/10.35594/kata.2021.28.6.007>
- [19] J. M. Kim, E. S. Park, "A Meta-Analysis on the Art Therapy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ADHD",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5, No.4, pp.421-438 2018.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8.25.4.001>
- [20]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1988.
- [21] Y. S. Ko, "A Meta-Analysis of the Efficacy of Group Art Therapy Programs for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6, No.6, pp.1071-1097, 2019.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9.26.6.004>
- [22] Y. K. Park,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n Context: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9, No.4, pp.25-49, 2017. DOI: <https://doi.org/10.21075/kacsn.2017.19.4.25>



- [23] D. L. Won, S. J. Gwon, G. H. K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0, No.2, pp.211-225, 2005.
- [24] H. J. Cho, J. K. Park, "The Study on Vocational Adjustment Proces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mployed as Care Worker Assistants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51, No.3, pp.163-193, 2016. DOI: <http://dx.doi.org/10.15861/kjse.2016.51.3.163>
- 

谈颖(TAN YING)

[정회원]



- 2020년 6월 : 중경인문과기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학사)
- 2023년 8월 : 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관심분야>

복지경영, 유아교육, 미술치료, 심리치료

---

이 정 건(Jung-Gun Lee)

[정회원]



- 2005년 7월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학과 (경제학석사)
- 2008년 6월 : 중국중앙재무경제대학 금융학과 (경제학박사)
- 2016년 9월 ~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 202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복지경영, 의료경영, 중국기업경영, 중국경제금융